

선진방역체계 구축 조속히 이루어져야...



김 광 원

국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1971.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 1987. 강원도 강릉시장
- 1991. 경상북도 포항시장
- 1991. 경상북도 부지사
- 2000.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 15, 16, 17대 국회의원
- 現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 광원 의원입니다. 위원장에 취임하여 대한양계협회가 발행하는 『월간양계』 칼럼을 통하여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월간양계』는 유용한 양계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양계인 및 관련단체들이 양계업을 경영하는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양계 등 축산업을 비롯한 우리의 농업, 농촌은 밀려드는 수입산 농축산물, 농축산물 소비의 정체 및 가격하락, 낙후된 농촌생활여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DDA 농업협상, 쌀협상 등으로 인하여 향후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가속화되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년에는 우리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쌀협상과 DDA농업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쌀협상의 경우 현재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9개국과 양자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쌀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후 10년간 119조원 투융자계획이 우리 농업, 농촌,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철저한 감시와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DDA농업협상의 경우 지난 7월 31일 세부원칙 기본골격이 확정됨으로써 앞으로 세부원칙의 확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협상의 쟁점이 될 관세인하, 보조금 감축, 개도국지위 유지 문제 등에서 우리 농업, 농민의 이익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양계업 등 축산업은 적정한 규모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며, 축산분뇨 자원화 등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초 국내 양계산업에 큰 피해를 가져온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는 물론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축질병은 일단 발생하면 축산농가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선진방역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각종 법안이나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이러한 축산업의 과제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후 10년간 119조원 투융자계획이 우리 농업, 농촌,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철저한 감시와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월간양계』가 앞으로도 양계산업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양계농가나 관련단체 등에 제공함으로써 양계산업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고, 우리 농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전문지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양지**